

# 카셰어링까지...명의도용 범죄 악용 위협수위

(car sharing)

아버지 명의로 차 빌린 고교생 무면허·뺑소니 사고

대포통장·대포폰 이어 신종 범죄 도구 전략 가능성

렌터카업체 직원과 대면 접촉 없이 차량을 빌릴 수 있는 카셰어링(car sharing)을 악용해 무면허·뺑소니 범죄를 저지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를 낸 10대 고교생은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렌터카를 받아 2박3일간 몰다 2건의 교통사고를 저지른 뒤 본래 자리에 뒀지만, 업체 측은 경찰 연락 전까지 차량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은 물론 운전자가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에 이어 카셰어링이 신종 명의도용 범죄 도구로 전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긴장하는 분위기다.

광주광안경찰은 11일 카셰어링 서비스로 빌린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고교 2학년 김모(17)군을 구속했다. 경찰은 최근 2주사이 김군이 가솔용 소형차 2대를 렌터카 업체에 예약해, 업체 직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비롯한 난폭운전 등 5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다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4일 밤 10시 5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월곡시장이 앞 편도 2차로에서 자신이 몰던 투싼 승용차를 앞서가던 K5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박모(39)씨 등 K5에 타고 있던 4명이 전치 2주 상당의 부상을 입었다.

김군은 앞서 이날 오후 6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연제동의 한 도로에서도 승용차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김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친구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카셰어링 서비스 업체가 운영하는 앱에 접속,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차량을 빌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카셰어링 앱에 들어가 아버지 이름, 생년월일, 운전면허 번호 등을 입력하고 지정된 계좌로 돈을 입금한 뒤 렌터카를 이용할 자격을 부여받았던 것이다. 그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스마트폰을 활성화해 차량을 2박3일간 운전한 뒤 본래 차량이 있었던 광산구 수완지구의 한 대형마트에 2차례의 사고로 망가진 차량을 가져다 놔다.

하지만 렌터카업체 측은 경찰이 차량번호 조회를 거쳐 운전자 인적사항을 문의하는 전화를 걸 때까지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고, 무면허 운전자가 차량을 몰았다는 사실도 지난 8일 경찰이 김군을 전주의 한 모텔에서 붙잡아 통보하기 전까지 파악하

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카셰어링 서비스에 대한 경찰의 우려도 여기서 비롯된다.

사고를 낸 김군처럼 운전면허가 없더라도 제 3자 명의를 도용하면 차량을 쉽게 빌릴 수 있어 교통사고 등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3자 명의로 차량을 빌려 강력 범죄에 악용한 뒤 갑작스럽게 차량을 반납할 경우 범죄 발생 사실 자체를 파악하는 것도, 용의자를 특정하고 잡히는 일 또한 간단치 않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주는 편리함의 이면에는 대포통장, 대포폰처럼 언제든지 사용 주체가 마음을 먹으면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범죄에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며 “셰어링 서비스 업체와 관계당국이 차량 인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옛 도청, 예술관 된 경위

5월단체, 자체조사키로

5월 단체가 ‘5·18 기념관’으로 활용해야 할 옛 전남도청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관’으로 쓰이게 된 배경을 조사한다.

5·18의 상징과도 같은 옛 전남도청이 누구에 의해 어떤 논의를 거쳐 활용방안이 결정되고 리모델링이 이뤄진 것인지를 세세히 파악한 뒤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5·18기념재단은 5월 3단체(유족회·구속자회·부상자회)와 함께 광주시 금남로 옛 전남도청 보존건물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으로 리모델링되는 과정 전반을 살펴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를 맡은 연구팀은 석·박사급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옛 전남도청 보존 방안과 문화전당 설계 논의 등에 참여한 교수 2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조사 결과는 다음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5월 단체는 5·18 시민군의 최후 항전지이자 5·18의 상징과도 같은 옛 도청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자는 주장을 펴왔다. 80년 5월 계엄군 총탄 흔적과 시민군이 쓰던 상량설, 방승설 등을 최대한 복원하고 그곳에 5·18 관련 자료를 채워넣어 5·18기념관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오랜 바람이었다.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기념관으로 쓰여야 할 옛 전남도청이 어떤 힘에 의해, 누구의 결정에 의해, 예술관의 하나로 전락했는지 밝혀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지난 10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5·18 최후항쟁 역사현장 보존을 위한 시민대회’에서 5·18단체 회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칠산대교 부실 시공·감리 허술 확인

행정처분·형사처벌 방침

영광 칠산대교 상판 기술임 사고는 시공업체의 부실 시공과 감리업체의 허술한 감독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업체는 사고 원인으로 드러난 강봉 연결장치(커피러) 공급이 늦어진다 이유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 하면서도 공사를 허술하게 진행했다.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은 이달 말까지 관련 업체들에 대한 추가 조사 후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영광경찰도 부실 시공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자들을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익산국도청은 11일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칠산대교 사고는 교각과 상판을 임시로 고정하는 상부강봉(쇠기둥)과 하부강봉을 연결하는 너트형태의 커피러 연결 불량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소위는 하부강봉과 커피러의 연결길이가 설계길이인 122.5mm보다 짧은 평균 21mm가 시공돼 교량상판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하부강봉과 커피러가 분리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커피러의 전체 길이는 245mm로, 설계도상 상부강봉과 하부강봉이 각각 122.5mm씩 연결돼야 한다. 하지만 하부강봉이 21mm만 고정돼 있어 너트형태의 커피러에 101.5mm의 빈공간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100%를 조여야 할 너트를 17%만 조였다는 것이다. 사소위는 강봉과 커피러의 연결 작업과정이 설계 시공순서와 다르게 시공된 사실도 확인했다.

익산국도청은 이달 말까지 원형업체 6개사, 감리업체 3개사, 하도급업체 등에 대한 추가 조사 후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처분에는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부과 등이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관급공사 수주 개입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 구속

## 지역관이 향후 파장 촉각 곤두

1억8000만원 건넨 건설사

전직 공무원들 간부로 영입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고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 김모(63)씨가 구속됐다. 김씨는 유정현 광주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지는데, 김씨에게 돈을 건넨 건설사에는 전직 공무원들이 회사 간부로 재직 중인 김 전 정책자문관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구속 절차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광주지방 영장전담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김 전 정책자문관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구속 절차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실질심사를 진행한 유병호 판사는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전남지역 중소건설사인 S건설의 자문 역할을 하면서 경영컨설팅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건설사로부터 자료를 빌려 자해 뒷돈을 받고 관급공사 수주에 부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S건설의 관급공사 수주 비리를 수사하던 중 김씨와의 유착 단서를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S건설이 수년간 전남도의 발주 공사를 따낸 과정에서 김

씨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S건설은 특허기술 등을 활용해 교량 등 토목공사를 하면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대행, 부동산개발, 안전진단, 소방시설, 정보통신공사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매출액도 2012년 78억원에서 2013년 269억원, 2014년 408억원, 지난해 445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S건설은 기술직 퇴직 공무원들을 회사 간부로 영입해 광주시와 전남도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전남도 출신 공무원들이 경영에 참여하면서 전남도 관급공사 수주에서 눈에 띄는 실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관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성장한 S건설에 퇴직 공무원들과 시장 측근이 직접 관련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혹이 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채무 고민 경찰 간부 자살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간부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간부가 고액의 채무로 고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경정은 최근 서구 오피스텔 증복분양 사기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함께 장 화강실에서 동부경찰서 소속 A(55)경정이 목을 매 숨겨 있는 것을 미화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A경정이 차량에 남긴 A4 한 장 분량의

유서에는 “빛이 많은데 남겨두고 떠나게 돼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는 조직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조직에 눈을 끼쳐 미안하다”며 “저승에 가서도 조직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해졌다.

A경정은 최근 서구 오피스텔 증복분양 사기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함께 고액의 채무로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채무 액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무면허 운전 적발되자 지인 주민번호 뒀다 뒤늦게 들통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되자 수배사실을 감추려고 지인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 밝힌 20대 남성이 뒤늦게 경찰에 체포돼 형벌이 추가될 신세.

○...11일 광주광안경찰에 따르면 사고와 폭행 혐의로 3건의 지명수배를 받고 쫓기던 이모(27)씨는 지난 6월1일 밤 10시20분께 광안구 월계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 단속에 걸리자 순순히 무면허

운전을 실행하면서 지인 A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발시인서에 적고 서명했다는 것.

○...최근 조사차 경찰에 출석한 A씨가 “나는 무면허 운전도, 적발 사실도 없다”며 부인하자 경찰은 시인서에 남긴 한 편의자의 지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신원을 확인한 뒤 이씨를 붙잡아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인적사항 도용)까지 적용해 11일 구속.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b>120만평</b> (평택 신도시 530만평) (현덕지구 70만평)	<b>평택 토지 전문</b>	<b>110만평</b> (미군기지이전) (KTX 개통) (평택 항)
<b>※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 !!! 평택 투자 절되 후회 없습니다.</b>		
<b>평택 토지 매매</b>	<b>전원주택지</b>	
① 평택 고덕면 당현리 (고덕신도시 5분) / 토지 613평 <b>▶ 매가 5억 8천 235만</b>	<b>경기도 평택시</b> 송탄 소방사거리 1분 !! 토지 - 1,611평 토목 공사완료 (허가완료) 최고의 입지 조건 ※ (총 7 필지 분할가능) 1필지 200평 3억 → 1억 투자시 가능 (용 2억) <b>※ 개발시 순수익 5억</b> <b>▶ 매가 16억</b>	
② 평택시 고덕면 통천리 (고덕신도시 5분) / 2,223평(평당 35만) <b>▶ 매가 7억 8천 178만</b>	<b>경기도 화성시</b> 정남 IC 5분 !! 평수 - 1,770평 현재 허가중 ( 현재 공장부지 최고의 토지 ) <b>※ 개발시 순수익 10억</b> <b>▶ 매가 10억 (평당 56만)</b>	
③ 평택시 고덕면 좌교리 (고덕신도시 5분) / 775평(농림지역) 도로 물림, 계획관리지역 옆 <b>▶ 매가 8억 5,250만</b>		
④ 진위면 마산리 / 314평 (투자 A급) 진위역과 LG산단, 마산단지 지번 <b>▶ 매가 3억 7천 680만</b>		
⑤ 진위면 마산리 / 301평 (전) 마산산단 25만평 정문 앞쪽 <b>▶ 매가 5억 2천</b>		
⑥ 평택시 지산동 (송탄 터미널 3분) 빌라, 오피스텔 개발부지 추천 / 193평 <b>▶ 매가 12억 6천만</b>		

010-7384-7800

010-6670-9800

<b>전남 영광</b>	<b>전원주택</b>	<b>매매</b>
<b>영광을 신월리 → 광주에서 40분 !!</b>		
● 토 151평, 건 43평 ● 영광 터미널 5분 (농가주택 최적합!!)		
<b>▶ 매가 8천 500만</b>		
<b>근린상가 (오피스텔) 소액 투자</b>		
□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6층 (45평) 물수리 천변로 전망 좋음 → 보증금-1,000만, 월세 60만(용 5천) □ 매가 1억 4천만	□ 서구 쌍촌동 원룸 (오피스텔형) → 2층 (11평) 운전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 매가 3천 5백만(전세값으로 내집 마련)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옆 →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 (용 1천 6백만) □ 매가 8천 500만
□ 전남 영광 광영동 상아 아파트 → (15평) 12층 - 전망 좋음, 주변 골프장, 아파트 밀집지역 → 보증금 200만, 월 25만 (전세 2천5백만 가능) □ 매가 3천 5백만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옆 보증금 500만, 월 42만 (용 2천4백만) □ 매가 7천 500만	□ 서울 용산 청파 도시형 → 지하 (13평) 숙명여대 1분! → 보증금 600만 월 60만 □ 매가 1억 6천 (용 5천)

062-527-7600

010-6834-4800

<b>법률 경매</b> (주) 대신경매
<b>★ 경매 물건 추천 ★</b>
① 서구 치평동 (근린시설) 토 66평, 건 260평 6층 상가건물, 상무지구 중심가 ▶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9억5천
② 광산구 신창동 (다가구 원룸) 토 70평, 건 108평 신창중 정문, 신축건물 릉 11개 - 월수익 350만 ▶ 감정가 4억6천 → 최저가 3억7천
③ 전남 장성 북하면 (식당건물) 토 280평, 건 253평 백암산 관광지 인근, 식당밀집지역 ▶ 감정가 7억8천 → 최저가 5억5천
<b>경매교육</b>
□ 기본이론을으면서 실천 교육 듣고 바로 수익창출 가능 □ 매주 오픈 □ 입찰부터 임대, 매매, 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 경매 실전 교육 ☆ 바로 실전으로 수익창출 하실분!! 특수물건, 유치권, 가정임차인, 경매입찰 등 실제 경험, 가장 중요한 실무교육 합니다.
<b>직원 구함</b>
부동산 경매 관심있으신분 공인중개사 환영 실천 경험자 우대, 환영